

>> 인쇄단체 · 기관 뉴스

▼ 대한인쇄문화협회,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과 협약 체결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지난 11월 2일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원장 김무곤)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이 동반자적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산학 협력체계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 이순석 부회장, 신병태 감사와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김무곤 원장, 이의수 공과대학장, 정용국 인쇄출판학과 주임 교수가 참가한 가운데 인협 유창준 전무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은 협약식에 앞서 “앞으로 인쇄문화산업의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합쳐 나가자”며 “두 기관의 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두는 것으로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자”고 말했다.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김무곤 원장은 “전자책과 모바일 북 콘텐츠가 성장했어도 종이책의 중요성은 여전하다”며 “이번 협약이 인쇄문화산업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대한인쇄문화협회와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은 인쇄문화산업이 지식 정보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쇄 출판산업 제 분야에서의 연구와 기술교류, 전문인력 교육, 기술자문들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인쇄문화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 또한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은 인쇄문화산업의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추천하는 인쇄출판학과 석사과정 지원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인쇄문화협회는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인쇄출판학과 석사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지원하며, 석사과정 이수 희망자를 추천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와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은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 인협, 2011년 하반기 인쇄전문인력양성 교육 실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2011년도 하반기 인쇄전문인력양성과정 교육이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월 14일부터 4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에 개설된 과정은 인쇄물 편집교정실무과정(매주 월요일), 디지털인쇄실무과정(매주 화요일)의 2개 과목으로 수강료는 무료이며, 관련교재 또한 무상 제공

◆ 동 정

- ▶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장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일본으로 파견되는 시장개척단에 참석한 다.
- ▶ 백성운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1월 16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4층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달 21일 한국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 ▶ 서울대학교 이순종 교수(미술대학 학장)는 지난달 10일 한국디자인총연합회 총회에서 제9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 부 음

- ▶ 조전국 (주)백산하이테크 대표이사의 모친이 지난 11월 8일 별세했다.
- ▶ 황병섭 광성문화 대표의 모친이 지난 10월 30일 별세했다.

◆ 이 전

- ▶ (주)해외문화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목정동 30-10 2층으로 이전했다.

◆ 변 경

- ▶ 플러스원(대표 주명길)은 최근 업체명을 (주)플러스원인쇄로 변경했다.



됐다. 인쇄물 편집교정실무과정은 금창연 교수(동원대학교 광고편집과), 디지털인쇄 실무과정은 김홍석 부장(한국후지제록스 디지털인쇄사업부)이 각각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인협은 상, 하반기로 나눠 각 2과목씩 인쇄전문인력양성과정을 마련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조합, 직접생산확인제도 토론회 개최



서울시인쇄정보조합(이사장 남원호)은 지난 11월 17일 서울인쇄센터 7층에서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서 남원호 이사장은 “오늘의 토론회는 인쇄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이를 취합해 관계부처에 건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른 산업처럼 일률적인 잣대로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는 인쇄업의 특성을 고려, 일정 비율의 외주작업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발표 됐다.

대한인쇄연구소, 제2회 이사회 개최

대한인쇄연구소(이사장 고수곤)은 지난 11월 17일 서울인쇄센터 7층 회의실에서 2011년 제2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 대한 선임의 건을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 소속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 화 축

- ▶리우식 (주)경림코퍼레이션 대표이사의 장녀 경주양이 오는 12월 10일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컨벤션 디아망 그랜드볼룸에서 화축을 밝힌다.
- ▶김성배 에쓰비프린팅 대표의 장남 종훈군이 지난 10월 22일 서초동 성당에서 화축을 밝혔다.
- ▶이장백 대한인쇄사 대표의 장녀 정화양이 지난 10월 30일 한강호텔 웨딩홀에서 화축을 밝혔다.
- ▶신형균 신신문회사 대표의 장남 현훈군이 지난 11월 20일 베르디하우스에서 화축을 밝혔다.
- ▶오병목 (주)천재교육 대표이사의 장남 현균군이 지난 11월 12일 아모리스 예식홀에서 화축을 밝혔다.
- ▶노이남 영세사신문화 대표의 장남 우영군이 지난 11월 6일 라루체 웨딩홀에서 화축을 밝혔다.
- ▶최정수 (주)독일피앤피 대표이사의 아들 동일군이 지난 11월 19일 명동성당에서 화축을 밝혔다.
- ▶박명숙 룬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장남 창환군이 지난 10월 2일 아펠가모에서 화축을 밝혔다.
- ▶김병기 국일인쇄사 대표의 장녀 길영양이 지난 10월 3일 P호텔 카라디움 홀에서 화축을 밝혔다.
- ▶홍종현 한국재생용재료업협동조합연합회장의 차남 승태군이 지난 10월 15일 가든파이프 아름다운컨벤션에서 화축을 밝혔다.
- ▶조태륜 부광인쇄 대표의 장녀 연동양이 지난 10월 15일 건대동문회관웨딩홀에서 화축을 밝혔다.
- ▶박금식 신영문화(주) 대표이사의 장남 건민군이 지난 11월 27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화축을 밝혔다.

▼ 인쇄학회, 추계학술논문발표회 개최

(사)한국인쇄학회(회장 구철회)는 지난 11월 18일 서울인쇄센터 7층에서 2011년 추계학술논문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동국대학교 RIS사업단이 후원했으며 50여 회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개회식에 이어 특별순서로 줌인포테크 장승완씨의 '오프셋 인쇄품질 관리를 위한 캘리브레이션', 아그파코리아 조현일씨의 '인쇄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 및 하이델베르크의 최봉석씨의 디지털인쇄기와 매엽인쇄기를 보완하는 스마트 프린팅 솔루션 '애니칼라'를 주제로 하는 산업체 특별강연이 있었다. 이어 'X=Vegetable Fatty Acid Esters에 따른 평판 잉크의 물성 변화에 관한 연구', '매트지의 오프셋 인쇄에서 PVC와 Solvent 함량이 인쇄적성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학술논문 발표가 이어졌다.

▼ 잡지협회, 제46회 잡지의 날 기념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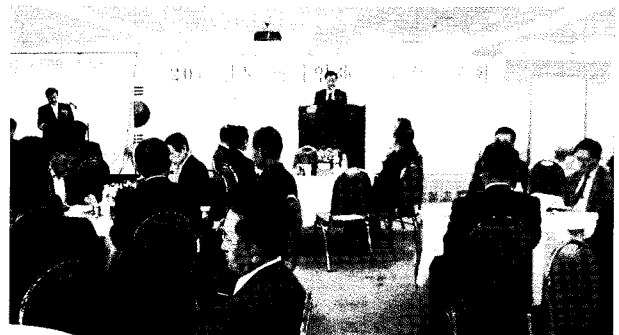
한국잡지협회(회장 이창의)는 지난 11월 1일 사학연금회관 2층 강당에서 제46회 잡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잡지문화 진흥에 공이 큰 잡지인들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함께 제45회 한국잡지전문상 수상자도 시상했다. 또한 잡지인이 선정한 올해의인물상 및 대한민국잡지광고 대상도 각각 수여했으며, 각계 인사들과 축하객 4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잡지협회 이창의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날 잡지산업은 IT기술 발달에 따른 모바일과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의 보급으로 다양한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경쟁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잡지는 그 특성과 기능면에서 현대 지식 정보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미디어이며 다양하면서도 우수한 전문 콘텐츠를 창출해 내는 문화상품의 하나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잡지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책적인 개선은 물론 그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잡지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전용진 수사연구사 대표가 은관문화훈장을, 김영철 (썬)가이미디어 대표이사는 문화포장을, 박한식 테크월드 회장은 대통령 표창을, 서동숙 미래는우리손안에 대표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잡지수집가 서상진 씨와 조성수 골프프먼스리

코리아 대표 등 10명이, 한국잡지전문상에는 김정석 도서출판 한미대표 (유공상), 김찬근 (썬)화광신문사 대표이사(경영상) 등 11명이 수상했다.

▼ 잡지협회, '모바일시대의 잡지 콘텐츠' 세미나 개최

한국잡지협회(회장 이창의)는 지난 11월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회의실에서 회원 및 회원사 소속 임직원들을 초청해 '모바일 미디어 시대의 잡지 콘텐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창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과 회원사 소속 임직원 여러분, 강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세무 회계와 관련하여 평소 궁금했던 점, 답답했던 점들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잡지사 세무 회계의 이해', 'Convergence 시대에서의 잡지의 역할', '모바일 미디어와 광고의 발전방향' 등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서울조합 책자인쇄부회, 정기총회



서울시인쇄정보조합 책자인쇄부회(간사장 김영철)는 지난 11월 9일 서울인쇄센터 7층 회의실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영철 간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노고를 치하하고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등 인쇄업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인만큼 업계의 단합을 위해 힘쓰자"고 말했다. 남원호 서울조합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조합은 인쇄업이 중소기업 업종으로 지정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인쇄가격 기준표를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는 전회의록 낭독, 2011년 결산보고 승인에 이어 임원 보선은 간사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 서울조합 상업인쇄부회, 정기총회

서울시인쇄정보조합 상업인쇄부회(간사장 서병기)는 지난 11월 16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병기 간사장의 개회사, 남원호 서울인쇄정보조합 이사장의 격려사에 이어 회의 및 결산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서병기 간사장은 개회사에서 "인쇄산업의 변화라는 도도한



흐름에 두려움만 갖지 말고 이 위기를 인싸인 모두가 함께 해결 방안을 강구해서 이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조합 사무용인쇄부회, 총회 개최



서울시인쇄조합 사무용인쇄부회(간사장 이창래)는 지난 11월 23일 서울인쇄센터 7층 강당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남원호 이사장 등 내빈과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창래 간사장은 인사 말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온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앞으로 우리 부회는 물론 조합원들이 인쇄부자재를 구매할 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호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4단체장이 모여 인쇄업계의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으며 앞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밝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2011년 결산보고, 회칙개정, 기타 사항 건의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부경대, 인쇄산업현황 토론회 개최

부경대학교 인쇄정보학과(학과장 이상남)은 오는 12월 2일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한미관 2층 컨벤션홀에서 '인쇄산업의 현황과 미래인쇄산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인쇄문화협회 유창준 전무를 비롯해 남원호 서울인쇄조합 이사장, 노길용 부산인쇄조합 이사장, 한영국 대한인쇄연구소장, 신익재 서울인쇄센터장, 김성미 대원인크화학 대표, 오병목 천재교육 대표, 신종순 중부대 교수, 오세웅 신구대 교수 등 9명과 이상남 윤종태 남수용 부경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다.

>> 인쇄업체 · 관련업계 뉴스

▼ 동양인크, 제6회 지속가능경영대상 수상



(주)동양인크(대표이사 최대광)는 지난 11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지속가능 경영대상에서 중소기업 대상(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동양인크는 한국 인쇄인크 산업 최대 제조회사로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모토 아래 꾸준한 사회책임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통합적 경영방식을 의미한다.

동양인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고객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품질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 후지제록스 컬러1000프레스 도큐컬러 1450 GA인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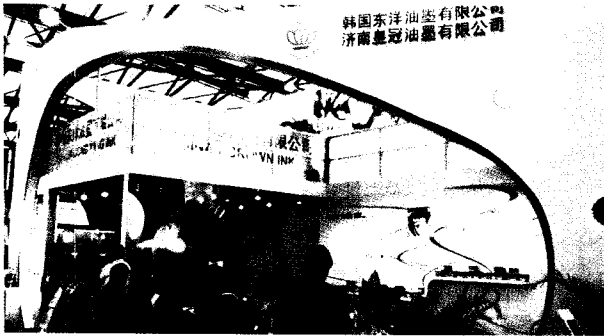
후지제록스는 최근 자사의 디지털 인쇄기 컬러1000프레스와 도큐컬러1450이 독일인쇄기술연구협회(Fogra)로부터 우수한 컬러 품질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인증은 컬러의 재현 및 관리에 대해 협회가 제시하는 엄격한 요건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충족시킨 제품에만 부여

된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후지제록스의 디지털 인쇄기는 컬러 1000 프레스, 도큐컬러 1450 GA, 아이젠4로 총 3종이며, 이 제품들은 자동화된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이미지 향상 도구들을 갖춰 고품질의 컬러와 이미지를 구현한다고 평가 받았다. 후지제록스 아태본부의 테츠카 코지 부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후지제록스의 디지털 인쇄기가 일관성 있고 정확한 컬러를 구현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며 "후지제록스는 앞으로도 인쇄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쇄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인쇄기술연구협회가 제시하는 인증 기준은 컬러 및 광택 프루핑, 지속성과 내광성, 색 바램, 색 정확도, 동질성, 일관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인쇄기술연구협회는 이번 인증을 통해 후지제록스의 디지털 인쇄기가 업계의 컬러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품질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동양잉크, 상해국제인쇄산업전 참가



(주)동양잉크(대표이사 최대광)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린 상해국제인쇄산업전(All In Print China 2011)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상해국제인쇄산업전은 3년마다 개최되는 전시회로서 중국에서 유명한 전시회중 하나이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친환경 인쇄, 디지털 인쇄 장비, CTP, 포장인쇄기기 등 인쇄에 대한 세계적인 기업들의 제품들이 출품했다. 전시 규모는 8만평방미터에 800여 업체에 달했다. 동양잉크는 8개 부스 규모로 참여하여 코맥스잉크, 에코맥스등과 제남황관잉크의 제품도 함께 전시해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도GL은 이번 메세나 대회에서 그 동안의 메세나 활동, 중소기업 매칭펀드를 통해 헤이리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A&B 공적을 인정받아 제12회 Arts & Business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성도GL/성도솔루션에서는 그 동안 믿고 응원해 주신 고객들께 이 기쁨을 공유하고 싶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경영을 통해 업계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HP, 2012년 기업고객 전략 및 솔루션 발표



한국HP(대표 함기호)는 최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2년 기업고객 전략 및 솔루션 발표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및 대기업 고객을 위한 차세대 프린팅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날 발표회에서 한국HP는 오는 2015년까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가 60% 이상 증가하고 태블릿PC사용자들의 출력량이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고 '클라우드 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기업용 클라우드 출력 솔루션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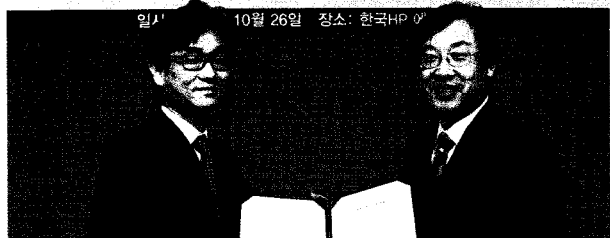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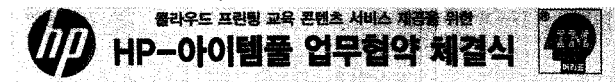
HP 이미징프린팅그룹 사업부의 임진환 부사장은 "내년에는 특히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용 클라우드 프린팅 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HP는 모바일 프린팅을 강화한 제품과 솔루션을 통해 중소기업 및 대기업 고객의 생산성 강화에 힘을 예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HP는 HP 레이저젯 엔터프라이즈 500 컬러 M551 프린터 시리즈, HP 레이저젯 엔터프라이즈 600 M601/M602/M603프린터 시리즈, HP 레이저젯 프로 100컬러 복합기 M175 시리즈 등 2012년 중소기업 및 대기업용 프린터와 복합기 시리즈 4종을 공개했다.

**성도GL /성도솔루션
2011 메세나 대회에서 Arts & Business 상 수상**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11월 16일 웨스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2011 메세나 대회 메세나 대상에서 Arts & Business 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2011한국메세나대회는 한국메세나협회와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컨퍼런스로, 특히 메세나 대상은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가진 상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한국HP, 아이템플과 MOU 체결



한국HP (대표 함기호)는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동 HP 본사에서 프린트 학습지 전문업체인 ㈜아이템플 (대표이사 류덕환)과 클라우드 프린팅을 통한 학습 콘텐츠 제공 서비스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HP의 'e프린트'는 모바일 장치에서 출력하고 싶은 사진이나 문서를 선택해 프린터 고유의 이메일로 전송하면, PC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출력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원격 프린팅 기술이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HP 포토스마트 B110A e복합기'와 애니스쿨 1년 회원권을 애니스쿨 사이트에서만 판매하게 되며 구매한 학습 콘텐츠가 가정의 복합기로 자동 전송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PC를 켜 필요없이 색칠공부, 글쓰기, 한자공부 등이 출력된 학습지를 매일 받아 보는 'e프린트 학습지 자동 출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HP 이미징 프린팅 그룹 잉크젯사업부를 총괄하는 김상현 전무는 "이번 MOU 체결로 복합기가 자녀 교육을 돕는 기기로 재탄생했다. 앞으로 한국HP와 ㈜아이템플은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단순 출력 기능만 수행하던 프린터·복합기의 진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기술 진보와 혁신적인 생각을 통해 HP는 새로운 콘텐츠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HP, 창덕궁 비원 가을 나들이 행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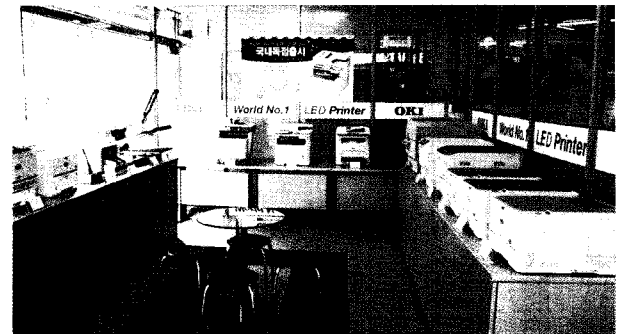
한국HP (대표 함기호)는 지난 10월 28일 서울시 공식 블로그 서울 마니아(blog.seoul.go.kr)가 주최한 '창덕궁 비원 가을 나들이 행사'에 e-복합기를 지원하고 현장 사진 인화와 HP e프린트를 체험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파워블로거 40여 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가을을 맞아 창덕궁 비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이날 HP는 e-복합기 4대(▲HP 포토스마트 프리미엄 e-복합기 C310a ▲HP 포토스마트 프리미엄 팩스 e-복합기 C410a ▲HP 포토스마트 ENVY e-복합기 D410a ▲HP 오피스젯 프로 e-복합기 8500a)가 장착된 'HP e프린트 트랙'으로 파워블로거 들의 베스트 포토를 현장에서 출력하는 체험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HP는 모바일 기기에서 이메일 전송만으로 실시간 출력이 가능한 'HP e프린트' 솔루션을 시연을 통해 수준 높은 HP의 포토 프린팅 기술을 선보였다.

한국HP 이미징 프린팅 그룹을 총괄하는 임진환 부사장은 "세계적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시와 창덕궁 비원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HP e-복합기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국오키시스템즈, 강남 솔루션 데모센터 개관



한국오키시스템즈(대표 유동준)는 제품 판매와 서비스센터의 기능이 결합된 공식 솔루션 데모센터 겸 A/S센터(<http://okitoner.co.kr>)를 강남구 개포동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오키의 강남 데모센터는 개인용 프린터에서부터 기업, 전문가용 프린터 및 복합기 등, 오키의 전제품군이 전시되며, 1:1 제품 시연을 통해 방문객이 직접 오키 LED 프린터와 복합기 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함재단기, 열전사프린팅, 아노토펴 솔루션 등 오키 프린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 솔루션을 제공한다.

한국오키시스템즈 유동준 대표는 "지난해 개관한 용산 데모센터에 이어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오키의 앞선 LED 프린팅 기술을 소개하고자 강남 솔루션 데모센터를 개설했다"며 "오키의 솔루션 데모센터를 통해 기존 사용자는 한층 강화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일반 소비자에게는 오키의 전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도리코, 통합문서보안솔루션 구축

신도리코(대표 우석형)는 지난 10월 2일 통합 문서보안솔루션 부문에서 안정성 높은 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해온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문서보안솔루션 시장 확대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도리코의 사전보안솔루션으로는 시원증, 지문 등을 인식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복합기 사용 전에 RFID 카드나 아이디/패스워드 인증을 필수화하여 비인가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내부문서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신도리코의 인증시스템은 사내 인사정보 또는 출입문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하는데, 이는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고객 정보 및 기밀 문건을 담고 있는 문서는 보안문서 결재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출력 또는 팩스로 보내어 지는데 문서의 생성부터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사후관리솔루션으로는 원본 이미지 저장 및 문자 추출 기술 그리고 문서 추적관리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복사, 팩스, 프린트, 스캔 등 문서와 관련된 모든 작업 이력과 이미지를 저장하고 문자 추출을 통해 개인정보나 기업의 중요 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사용 이력을 자동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기밀 문서를 완벽하게 보안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문서 추적관리 기술은 모든 출력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 번호를 통해 문서 재작업 이력을 추적함으로써 원본문서의 복사, 스캔, 팩스 등을 통한 사본 생성내역과 문서의 이동경로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고급 기능이다.

▼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사회복지시설에 사무기기 전달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대표이사 김천주)은 지난 11월 2일 안산시와 상생발전협약에 따른 우호 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내 사무자동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무기기 전달식’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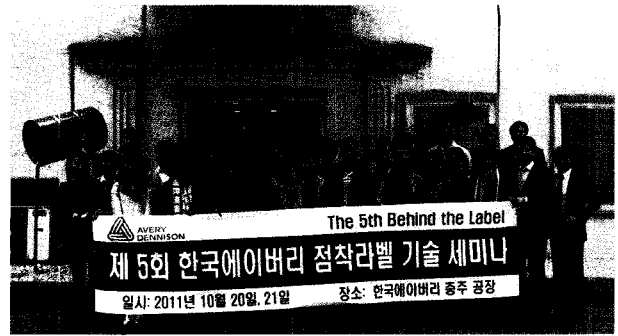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안산공장에서 실시된 이번 사무기기 기증식에서는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김천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빛과 등지(성인 주간 보호시설) 외 44개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은 이번 사무기기 전달식에서 대형복합기 18대, 소형복합기 28대 등 총 46대를 기증하였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관계자는 “기업의 모토인 ‘나눔경영’에 따라 그간 노후화된 사무기기를 교체해 보다 편리하게 담당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은 사무기기 기증식을 비롯해 기업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시설에 기부하는 기부문화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국에이버리, 점착라벨 기술세미나 개최

한국에이버리(대표 송경환)는 지난 10월 20일~ 21일까지 이틀 간 충주공장 본사에서 점착라벨 기술세미나 ‘Behind the Label’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는 이번 세미나는 패키징 소재로서의 점착라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이론 세미나, 실제 원단의 생산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공장 투어, 점착력과 이형값 측정 등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연구개발실과 품질관리실 실습 순으로 진행되었다.

총 3부로 진행된 이론 세미나에서는 점착라벨의 이해와 적용, 품질 문제의 원인과 해결, 혁신적 라벨 제품의 소개 등 다양하고 유익한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친환경적 소재인 수분리성 라벨과 패키지의 효율성, 기능성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라벨에 대한 강연이 주목을 끌었다.

한편 한국에이버리는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점착라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관련 기업과의 협력관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 2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인쇄전문학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 소다프린트, 한글일일달력전 개최



소다프린트(대표 안영철)는 캘리그래피디자인그룹 ‘어(語)울림’과 함께 ‘2012한글일일달력전’을 개최했다. 이번 한글일일달력전은 오는 2012년 1월 29일까지 서울 광화문 해치광장 한글갤러리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배우 권해효, 오윤아, 가수 유열 등 초대인사 66명과 함께 300명의 어울림 회원들이 2012년 366일(윤달 포함) 가운데 날짜 하루와 그날에 맞는 순우리말 의성어나 의태어중 한가지를 선택해 각 계절의 소리와 모습을 표현했다.

소다프린트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한글이 가진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들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2012한글일일달력전’을 통해 뜻 깊은 한 해 계획을 세워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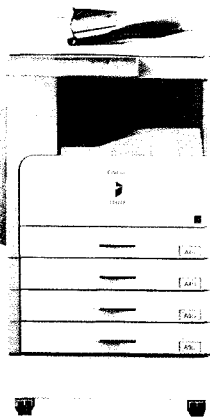
>> 제지뉴스

▼ 소다프린트, 행복한 작가 오픈

소다프린트(대표 안영철)는 최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책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는 '행복한 작가(www.happybook.kr)'를 오픈했다.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행복한 작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신의 원고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편집과 인쇄, ISBN 등록과 국립중앙도서관 납품, 온라인 서점 판매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베이직, 스페셜, 미니멀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베이직은 판매보다는 책을 출간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하는 작가들을 위한 것으로, 제작비가 저렴하며 작가에게 증정되는 책의 수량이 많다. 스페셜은 500부와 1000부로 나누어져 다량의 책을 제작하기 위한 패키지 상품이다. 미니멀은 출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50부와 100부가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는 부수와 나머지 부수는 작가에게 모두 증정되는 패키지로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

▼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보급형 A3 디지털 흑백 복합기 출시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대표이사 김천주)은 지난 10월 27일 중소기업 고객을 타겟으로 한 보급형 A3 디지털 흑백 복합기 'iR 2422L'과 'iR 2420P'를 출시했다.

iR 2422L과 iR 2420P는 A4 기준 1분에 최대 22매 출력력이 가능하며, 전원 ON시 워밍업 시간 13초, Sleep 모드에서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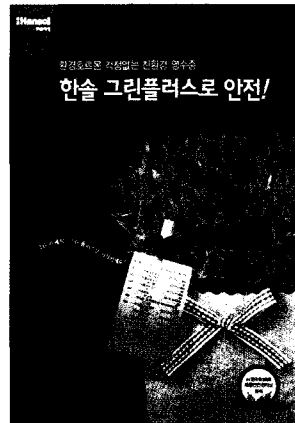
모드 전환시의 리커버리 시간 1초 이하로 흑백 문서 사용빈도가 높고 빠른 출력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또한 정착롤러와 종이 부분이 맞닿는 부분만 가열하는 'Rapid Fusing System'을 적용해 전기 소모량이 1/4로 적게 들고, 순간 가열이 가능해 바로 출력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용지 걸림이 없는 종패스 방식을 채용해 용지가 용지 카세트에서 바로 전사부로 반송되어 경로를 최소화하고, 용지걸림 현상을 줄인 점이 특징이다.

또한 신분증 복사 기능이 있어 한 장에 간편하게 양면을 복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관계자는 "신제품 iR 2422L과 iR 2420P는 빠른 출력과 편의기능을 요구하는 중소기업 고객에게 최적화된 A3 디지털 흑백 복합기로 회의때 주로 사용하는 양면 복사, A3 출력, 신분증 복사 등 업무편의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 한솔제지, 제1회 제품안전관리상 수상



한솔제지(대표 권교택)는 지난 11월 15일 제주 하얏트 리젠시호텔에서 열린 제1회 제품안전관리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제품안전관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매년 실시될 예정인 '제품안전관리상'은 사단법인 한국독성학회 내의 생활용품, 식품, 의약 분야 등 독성 관련 학자 및 독성전문

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의 건강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안전한 제품 생산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큰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한솔제지, 아모레퍼시픽, KT&G, 대상, CJ제일제당 등 5개 기업이 선정됐다.

한솔제지는 제조과정에서 비스페놀A(BPA)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감열지(한솔감열지 Green Plus) 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사용 권장 활동을 전개한 노력을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했다. '한솔감열지 Green Plus'제품은 비스페놀A(BPA) 대신 유럽 식약청 및 미국FDA의 승인을 받은 젯병과 섬유 제조에 사용될 만큼 안전성이 검증된 물질을 사용해 영유아, 임산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한솔제지는 지난 9월부터 이마트, 10월부터는 현대오일뱅크에 한솔감열지 그린플러스를 전량 납품하고 있으며 감열지를 많이 사용하는 백화점, 할인점, 금융회사, 정유사 등 업체들이 친환경 감열지 사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한솔제지, 사옥 이전 및 모바일 서비스 확대



한솔그룹은 12월 중순 경 서울 을지로 '파인애비뉴' 빌딩(사진)으로 이전한다고 지난 11월15일 밝혔다. 이는 광화문 사옥에서 1998년 강남 역삼동으로 옮긴 지 13년 만이며 그룹 경영기획실을 비롯해 한솔제지와 한솔

CSNI가 먼저 이전할 계획이며, 향후 한솔개발, 한솔테크닉스, 한솔홈데코 등 다른 계열사 이전도 검토하고 있다. 이전하는 빌딩은 지상 25층짜리 신축 쌍둥이 빌딩으로, 한솔은 B동 4개 층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솔 관계자는 “주력계열사인 한솔제지 주요 고객이 대부분 강북 충무로와 일산, 파주 일대에 밀집해 있는 것을 감안해 그동안 강북 이전을 꾸준히 검토해 왔다”며 “고객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솔제지는 인쇄용지 영업부문에서 이미 시행 중인 모바일 오피스를 산업용지, 특수지 부문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업무생산성 향상 및 고객접점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국제지, 밀크 페이스북 운영 개시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지난 10월 27일 밀크 페이스북을 오픈하고, 본사 및 대리점 임직원,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제지 관계자는 밀크 페이스북 가입자들은 자신의 친구 리스트를 기반으로 ‘좋아요’ 및 ‘공유하기’를 적극 이용함으로써 밀크 브랜드 팬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제지는 앞으로 밀크의 성공적 런칭을 위해 구전마케팅(viral marketing)을 지속할 예정이며 페이스북을 통한 입소문의 성패는 초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범사적인 임직원의 페이스북 가입 및 친구에게 공유하기 등의 적극적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www.facebook.com/milk.paper

▼ 녹색성장위원회 한국제지 온산공장방문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지난 11월 4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과 울산 산업단지공단EIP(Eco-Industrial Park) 사업단장 등 12명이 온산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장견학은 스팀 수급사업 소개, 한국제지 PM4 현장 및 스팀, CO₂배관을 직접 견학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국제지는 이번 방문은 한국제지와 고려아연과의 스팀수급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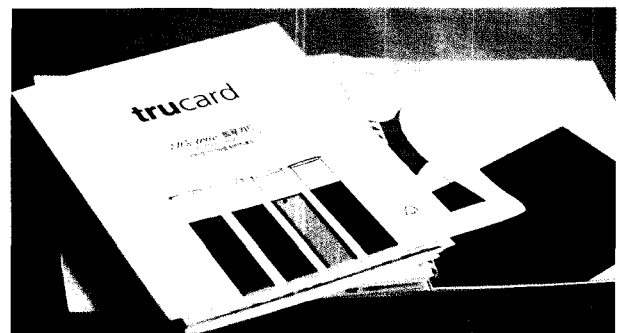
한 CO₂ 절감활동이 울산지역 녹색성장 관련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의 우수사례 사업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소개했다.

▼ 한국제지, 자연보호중앙연맹 공로상 수상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지난 10월 27일 울주군 서생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 33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에서 그 동안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은 울산시와 함께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여 소중한 자연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1978년 제정되어 시민들의 자연 사랑과 환경보전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데, 한국제지는 금번 공로상 수상을 통해 '09년 울산 환경대상 수상에 이어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 삼원특수지, 트루카드 인쇄샘플 한정출시



(주)삼원특수지(대표 이연욱)는 고품질 화이트보드인 트루카드 인쇄샘플을 한정 출시했다고 밝혔다. 트루카드는 우수한 종이강도와 두께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평량과 표면 피니쉬 처리(비코팅, 단면-양면 코팅)로 구성된 FSC인증 친환경 제품이다.

회사측은 출시와 함께 화장품, 식품 등 각종 패키지분야와 카탈로그, 메뉴판, 카드, 택(Tag) 과 같은 그래픽 인쇄물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측은 이번에 출시된 인쇄샘플에서는 트루카드의 제품구성과 함께 여러 가지 후 가공이 적용된 패키지, 카드, 홀더, 명함, 초대장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특히, 2012년 신년 감사카드 및 카탈로그와 같은 인쇄홍보물을 준비하고 있는 출판사와 인쇄사, 디자이너들에게 트루카드의 뛰어난 인쇄성과 가공성을 미리 볼 수 있는 유용한 인쇄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출판 및 관련 업계 뉴스

▼ 출판산업 중장기 진흥방안 공청회 개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10월 28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지하3층에서 '출판문화산업 중장기 진흥방안 연구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부길만 동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정현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자가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후 박영를 커뮤니케이션스 대표, 백원근 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이구용 KL 매니지먼트 대표, 이종호 북센 미래사업본부 본부장, 이용준 대전대 교수, 조재은 양철북 대표 등 6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정현일 연구원은 발제문에서 세계 5대 출판문화산업 강국진입을 목표로 ▲ 출판생산과 글로벌 진출의 연계 ▲ 건전한 유통생태계 구축 ▲ 전자출판분야 확충 ▲ 출판수요 확대 ▲ 출판인프라 강화를 추진 전략으로 내세웠다. 중점추진과제로는 출판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선진유통체계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자출판진흥, 출판수요 확대, 출판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등 6개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출판문화산업은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이며, 문화콘텐츠의 원천을 제공하는 중요한 분야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출판문화산업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중장기 진흥방안에는 출판문화산업의 중장기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공청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 간행물위, 2011간행물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양성우)는 지난 10월 26일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2011간행물문화대상' 시상식과 함께 2011 디자인이 좋은책 시상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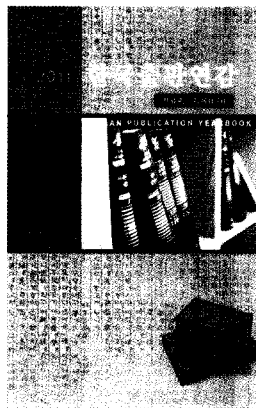
양성우 간행물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최종 후보에 오르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독서 선진국이 될 때까지 앞으로도 출판과 독서진흥에 더욱 더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상은 강판권 계명대 사학과 교수가 받았으며, 출판인쇄상은 박은주 김영사 대표, 특별상은 독서대학 르네21(대표 김광준)이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500만원의 부상이 수여됐다.

한편 '디자인이 좋은 책'은 복디자인어 오피민, 안지미, 정은경씨 등 11명의 디자이너와 편집 책임자가 수상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간행물 문화대상'은 매년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저자와 출판인 등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디자인이 좋은 책'은 출판편집 및 디자인이 우수한 책을 선정해 실무자들을 시상함으로써 출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간행물위 관계자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 and 지식 문화 산업의 근간인 출판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협, 한국출판연감 발간



한국출판문화협회(회장 윤행두)는 최근 2010년도의 한국출판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2011년도판 한국출판연감을 발간했다.

2010년도 출협을 통해 납본된 도서 목록(CD)을 부착한 자료편 1권으로 제작된 '한국출판연감'은 크게 개관, 통계, 법규, 참고, 명부 등 총 5개의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개관편에는 2010년의 국내외 출판 시장의 흐름과 동향을 정리한 분야별 원고를 비롯해 출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인쇄, 잡지, 서점, 제지분야의 전문가 총평을 수록했으며, 통계편에는 2010년 신간도서 종수, 부수, 번역도서 발행 종수 등을 비롯한 최근 10년간 분야별(종수, 부수, 정가, 면수, 번역출판종수 등) 추이를 집계한 국내 출판통계 외에 주요국가(미국, 영국, 독일 등 12개국)의 도서시장 규모와 출판산업 개황을 살필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수록했다.

또한 2010년 일부 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세부 내용을 비롯한 저작권법 등 출판 관련 법률자료와 함께 각 단체별로 선정하고 있는 추천도서 목록도 함께 게재했다.

▼ 한국출판학회, 23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출판학회(회장 남석순)는 지난 10월 27일 출판문화회관 4층강당에서 제23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출판학의 재개념화 및 연구방법론'으로 이창경 한국출판학회 부회장(신구대학 교수)의 사회로 김기태 세명대 교수(한국출판학회 부회장)가 '출판 재개념화에 관한 고찰'에 대해, 김정숙 백제예술대학교수와 배현미 한양대학교 외래강사가 '모바일 혁신 시대 '출판' 개념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은 이기성 전계원예술대학 교수와 정윤희 출판저널대표가 참여했다.

남석순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새로운 출판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출판 개념의 재정립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내용으로서 발제자와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하여 출판학의 현실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5회 출판 전공 대학원 우수논문 발표회도 함께 진행됐는데, 한혜영(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출판 전공)씨가 '대한제국시기(1897~1910)의 도서출판에 관한 연구'에 대해, 김지연(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출판정보미디어 전공)씨가 '블로그와 트위터 이용자들의 소셜 미디어 출판에 대한 연구'에 대해, 조진이(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출판저작권 전공)씨가 '저작물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공정이용(Fair Use) 법 제도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 어도비, 어도비 글로벌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발표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 지준영)는 지난 10월 24일 제 11 회 '어도비 글로벌 디자인 공모전(Acobe Design Achievement Awards, 이하 ADAA)'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이승은(Lara, 국민대학교)씨의 'My Favourite Animal'이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국제 그래픽 디자인 협의회인 '이코그라다'와 협력해 진행된 본 행사는 10월 2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올해에는 교육용 전통 미디어 혁신 부문, 교육용 인터랙티브 미디어 혁신 부문, 교육용 비디오 및 모션 혁신 부문 등이 새로 신설되었으며, 후자 두 항목에 대해서만 시상되었다. 시상식에서는 42명의 본선 진출자 중에서 인터랙티브 미디어, 모바일 디자인, 비디오 및 모션, 전통 미디어에 걸쳐 15개 분야에서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교수진 수상 분야가 처음으로 실행된 이번 ADAA는 2001년에 처음 시작된 이래 학생 참가 증가율이 61%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세계 73개국에서 4605명(팀)이 넘는 학생들이 작품을 제출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참여는 2010년 385팀보다 늘어난 961팀으로 전체 참여자의 21%를 차지했다. 한국 참여자도 198팀으로 2010년 158팀 등록한 것에 비해 증가하였다.

어도비시스템즈의 안 루네스(Ann Lewnes) 글로벌 마케팅 수석 부사장은 "오늘 수상한 학생들이 바로 미래의 사진전문가, 필름메이커, 게임 디자이너들이다. 이번 행사에서 수준 높은 학생 작품을 대거 볼 수 있다는 점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 해외뉴스

▼ 코닥, 중국에 첫번째 PROSPER 1000 Press 설치

코닥은 중국에 처음으로 PROSPER 1000 Press 설치했다고 밝혔다. PPMG(Phoenix Publishing and Media Group)는 도서인쇄 운용의 성장을 위해 KODAK PROSPER 1000 Press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China Daheng 그룹의 Xue Qiang 부사장은 "도서 출판과 소비자들의 행동양식은 지난 몇 년 동안 극적으로 변화해왔다"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PROSPER 1000 Press는 우리의 공급망을 개선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었다"고 말했다.

코닥의 스트림 잉크젯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스퍼1000프레스는 분당 최대 200미터의 속도로 62.23cm24.5인치)의 넓이를 제공하는 컴팩트한 모노크롬 프레스이며 한 달에 A4 혹은 엽서 크기 9천 만장을 사용하며 8, 12, 16페이지 서명을 위해 가장 생산적인 잉크젯 웹 프레스로 인정받고 있다.

코닥 아시아 지역의 루이스 레벡 부사장은 "우리는 사업의 본질이 변화하는 동안 잠재력을 볼 줄 아는 도서출판 사업자와 인쇄사업자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확인하고 있다"며 "창고에 재고들이 오랫동안 쌓여있는 것은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다. 더 단기적인 운용은 출판업자들이 시장의 수요에 반응하고 프로스퍼1000프레스가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고 전했다.

PPMG는 출판, 책 유통, 프린팅, 호텔, 부동산 및 금융 등에 걸친 대그룹으로 연간 120억 위안의 판매 수입을 기록했으며 현재 11,000명의 직원과 34개 관련 부서가 조직되어 있다.

▼ 코닥, PLMA에 패키징솔루션 선배

코닥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PLMA(Private Label Trade Show)에 참가했다. 올해 PLMA에는 2천 개가 넘는 전시 부스규모로 크고 유명한 상점 브랜드 메이커에서부터 중소기업의 회사들까지 다양하게 참가했으며 코닥은 KODAK TRACELESS AD System for Antidiversion와 KODAK DESIGN2LAUNCH Brand Manager의 시연을 비롯, 패키징 솔루션에 대한 모든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최근 PLMA의 연구에 따르면 상점 브랜드는 개인상표 부착 제품의 연간 판매율은 슈퍼마켓에서 40%, 약국에서 96%가 증가하는 동안 평균 판매증가율은 슈퍼마켓이 2%, 약국이 5%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코닥의 포장인쇄 부분 존 앤더슨 이사는 "상점을 둘러보면 개인상표 부착 브랜드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판매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코닥은 패키징 시장에서 포괄적인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며 개인상표 부착 브랜드, 소매업자와 브랜드가

치를 한층 더 강화시키고 소비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선반효과를 이끌어내는 그들의 공급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닥의 패키징 솔루션들은 브랜드 오너들의 브랜드 가치 보호, 선반효과 증가 그리고 시장 진입 속도의 증가를 돕는 동시에 포장 디자이너들을 위해 더 큰 창조적인 유연성을 제공한다. 전시회 기간 동안 코닥은 기존에 성공한 KODAK TRACELESS 시스템에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하여 선보였다. 도용방지를 위한 TRACELESS AD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불투명 잉크와 등록상표가 붙은 탐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제조업자들을 위한 보안솔루션이다. KODAK TRACELESS AD 시스템은 브랜드 오너들이 제품을 추적하고 불법 유통 채널과 허가받지 않은 재판매업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돕는다.

이외에도 코닥은 인정받은 오프셋 포트폴리오의 패키지 생산 환경의 수요를 강조하고, 샘플을 통해 플렉소그래픽과 워크플로 기술들을 PLMA 2011에서 선보였다.

▼ 코닥, NAG에 FLEXCEL NX 와이드시스템 설치

코닥은 North American Graphics(NAG)에 KODAK FLEXCEL NX Wide System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NAG Art Thompson부사장은“North American Graphics는 디지털 프리프레스와 플레이트메이킹 전문가이며 미국과 캐나다를 통틀어 클라이언트들에게 공급하는 코닥 FLEXCEL NX 와이드 시스템을 설치한 미국의 첫번째 무역상이다”고 발표했다.

KODAK Plates와 플레이트메이킹 시스템으로 바꾸는 결정으로 NAG는 더 넓은 포맷에서 일하는 고객들을 수용하는 비즈니스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Thompson부사장은“FLEXCEL NX 와이드 시스템이 출시되자마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FLEXCEL NX System은 사용자들이 플렉소 프린팅 경계선 쪽으로 물려가게 하는 디지털 플레이트메이킹을 위한 뛰어난 솔루션으로 이 시스템은 뛰어난 온프레스 수행능력을 전달해주는 플레이트를 생산하기 위해 우수한 이미징 기술과 재료과학의 독특한 조합을 사용한다.

FLEXCEL NX Wide System은 최대 42에서 60인치까지 플레이트를 지원하는 큰 포맷으로 현재 FLEXCEL NX System의 모든 기능과 이점들을 제공해준다. 이 시스템은 프린터업자들과 무역상들이 하나의 플레이트에서 작업 레이아웃을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양한 패키지 사이즈 혹은 효율성을 증가시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코닥은 글로벌 어드바이저이고 기업들의 변신과 그들의 사업을 최적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통합된 서비스 제공자로서, 120개국이 넘는 서비스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술적, 전문적, 컨설팅, 관리되는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이 비용을 제어하고 생산성을 극대화 하고 사업 위험을 최소화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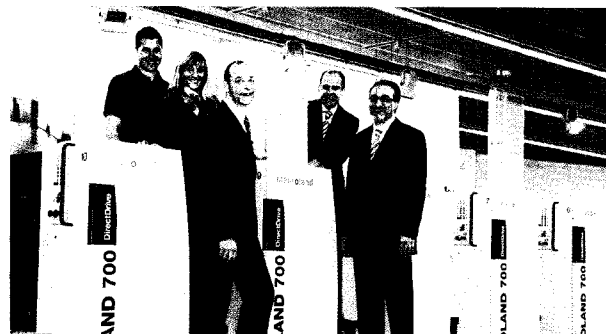
▼ 만로랜드, 친환경 및 비용 절감에 기여



독일 Fuldabr ck 위치한 Hesse인쇄공장은 최근 만로랜드의 700인쇄기를 도입, 친환경 및 비용절감에도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만로랜드의 신형 오색인쇄기인 700인쇄기는 기존의 인쇄기를 교체했다. Hesse의 소유주인 Petra Kaiser는“코팅모듈이 장착된 새로운 인쇄기는 고객들의 까다로운 요구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Hesse사는 브로슈어, 카탈로그, 포스터, 회의록, 전단, 사무용 책자, 그리고 다른 여러 인쇄물을 인쇄하고 있다.

로랜드 700인쇄기의 빠른 전환 옵션은 직원의 인쇄기 작동을 편리하게 만들어 빠른 색상 맞춤 기능은 중앙제어판에서 잉크 흐름을 빠르게 변화시켜, 손지량을 감소 시킨다. 빠른 전환 옵션을 모두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30%의 인쇄 능력이 향상되며 사용하지 않는 인쇄 유닛은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롤러의 마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습수시스템 냉각장치와 인쇄유닛 온도 조절장치는 매년 에너지소모량의 최대 25%를 절약 할 수 있다.

▼ 만로랜드, 표준화된 품질로 경쟁력 재확인



만로랜드는 오프셋인쇄 표준에 의해 다시 한번 경쟁력의 우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픈바하에 있는 만로랜드 인쇄기술 센터에서 자체 작업공정, 기계, 프린트콤 재료는 표준화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는 것으로 PSO 에 대한 검증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검증요구조건에 대한 표준화된 이행은 인쇄제품 또는 부분 인쇄 가 PSO또는 ISO12647 에 따라서 생산 된 것을 증명했다.

만로랜드는 지난 2007년도에 PSO인쇄 표준화를 인증 받은바 있다. 프로세스엔지니어링과 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Sharam Hauck 프로젝트매니저는 “인쇄산업에서 인쇄업자가 표준화 된 방법으로

의 작업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PSO는 점점 더 많이 인정을 받게 된다" 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고객을 위한 인쇄 시험을 할때 PSO는 국제적으로 유효한 표준을 위한 좋은 기초가 되고 있다.

독일 hesse인쇄 및 미디어 산업 연합에서 기술 책임 관리자이자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Thomas Wegney Ney는 인쇄품질에 만족감을 표하며, 특히 종이의 넓이 방향으로 잉크가 균일하게 적용되고 전 작업 동안 인라인 컬러파일럿의 효과를 인정했다.

만로랜드

IFRA 2011 전시회에 새로운 COLORMAN e 라인 발표

비엔나에서 열린 IFRA 2011 전시회에서 만로랜드는 autoprnt를 통한 고객의 성공 비결과 운전기의 업데이트 옵션을 통해 항상 최상의 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만로랜드는 첫 번째 블랭킷 - 블랭킷 디자인의 칼라만 e 라인 판매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효율성(eficiency), 편의성(easy to operate), 인체공학적(ergonomic), 최고의 인쇄품질(excellent printing quality), 그리고 에너지 절약(energy saving)을 의미하며 만로랜드는 이번 IFRA전시회에서 새로운 칼라만 모델을 공식적으로 선보였다. 첫 번째 기계는 2012년 10월 독일의 Kempten에 자리 잡은 Allgauer Zeitung사에서 가동 될 예정이며 많은 관심을 끄는 B-B형인 신문 운전기로서 전혀 새로운 디자인으로 업계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만로랜드는 전했다.

국제기능올림픽서 일본 여성인쇄인 금메달 수상



제 41회 국제 기능 올림픽이 지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다.

은 22,000명 이상이 런던의 O2 아레나를 꽉 채운 앞에서 인상적인 폐막식을 가지며 10월 9일에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4일간 치러진 이번 기능올림픽에는 51개국에서 1,000여명이 참가해 46개 부문에서 세계 챔피언이 선발되었다. 참석자는 영국 국무총리 David Cameron과 Ann 공주와 유명 정치인과 비즈니스 관계자들을 포함

한 200,000명의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메달과 순위를 놓고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오프셋 인쇄 부분에서는 처음으로 젊은 여성 2명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했다. 금메달을 차지한 22세의 인쇄인 Makiko Ito씨는 2008년부터 일본의 Asia Printing Corporation에 소속되어 있으며 하이델베르크의 프린트마스터 PM 74로 기술을 닦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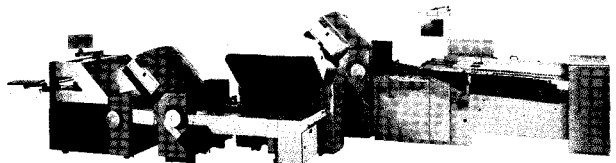
은메달 수상자인 Susanna Virtanen씨는 프린트마스터 PM 52 4도 인쇄기를 갖춘 트레이닝 센터이자 인쇄 회사에 속해있다.

하이델베르크의 프린트 미디어 센터 경영진의 Bernhard Nahm씨는 "하이델베르크에는 최근 몇 년간 여성 인쇄 훈련생들이 높은 비율을 보여왔다. 현재 10명의 여성이 인쇄인이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 다음 국제 기능 올림픽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에서 개최된다. 아마도 우리 학생 중의 한 명이 2013년 라이프치히에서 최종 경선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델베르크는 2대의 스피드마스터 SM 52 5도 인쇄기를 경기에 제공했다. 유럽의 참가자들은 2011년 9월에 하이델베르크에 위치한 프린트 미디어 센터에서 같은 종류의 인쇄기로 예비 교육을 받기도 했다.

CKN Print 사

스탈폴더 TH 82로 작업준비시간 감소



영국 노샘프턴에 위치한 CKN Print 사는 최근 설치한 TH82로 기존 작업 준비 시간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3명의 공동 대표의 이름을 따라 설립된 CKN Print 사는 기본적 인쇄 뿐 아니라 디자인, 메일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CKN Print 사는 그동안 3시간정도 소요되었던 대형 작업이 30분만에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TH 82는 메일링 기능과 함께 인라인 글루잉 장치를 갖추고 기존의 TD78 옆에서 24시간 가동된다. CKN Print 사의 제이 킹스톤 대표는 "TH 82 자동화는 작업준비가 훨씬 빨라져 접지기가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직원의 기능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접지 기술은 필요하며 자동화를 통해 어떤 직원이 컴퓨터를 아는가 모르는가가 중요해졌다. 현재 후가공 부분은 다양한 연령에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뉴스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간소화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이 앞으로는 고용변동 내역을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17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합 고용변동신고(E-9, H-2)'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나 사업장 이탈 등 주요 고용변동 사실이 있을 경우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자동으로 법무부와 고용부에 통보된다.

12월 1일부터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행법상 주요 고용변동 사항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가능

앞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적합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원 한도에서 나라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의 사용 증가로 카드 포인트 적립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어 영세납세자의 납부 편의차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지난 10월 17일 밝혔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포인트 사용은 지로나 현금 납부가 아닌 카드결제시에만 쓸 수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상 여러 장의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통합해 사용할 수는 없지만 카드사별로 나눠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사별로 적립된 포인트는 7조6천억원인데 이중 6천억원(8%) 가량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됐다. 포인트 사용은 부가가치세를 비롯,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최고액과 동일한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다. 신용카드 세금 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카드 포인트 사용이 777건(2천900만원)으로 건당 평균 포인트 사용액은 3만8천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

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채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900억원 긴급지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연말 일시적 경영난 해소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9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긴급 조성해 선착순으로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업체당 최고한도 5천만 원으로 대출금리 3.67%(1년 가치 4년 상환)이며 제출서류 및 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 집중호우 및 돌발적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해자금과 장애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장애인자금(대출한도 1억원, 3% 고정금리)도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서 자금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및 접수 받으며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거쳐 18개 은행이 대출을 집행한다.

▼ 지경부, 연구개발예산의 40% 중기에 지원

지식경제부는 2015년까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40%를 중소기업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 11월 16일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지경부 R&D 예산 26% 정도가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다"며 "앞으로 그 비중을 4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경부 R&D 예산은 국가 전체 R&D 예산의 30% 규모인 약 4조5000억원으로 중소기업 26% 외에 12%는 대기업, 나머지는 각종 정부 연구기관으로 지원되고 있다. 지경부는 또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나 일반 국민 등 집단지성에 기반한 R&D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논문, 특허를 기반으로 전문가를 찾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 국세청, '성실납세 중기'에 우대제도 시행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에 다양한 우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제도의 일환으로 납세자세법교실로 상시운영하고 있는 교육원 시설을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연수 또는 체육시설로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성실납세중소기업의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①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표창을 수여받은 모범납세자와 ② 노동부 등의 기관추천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기업으로 체납세액이 없는 중소기업이면 된다. 우대 제도가 시행되면 4784명에 달하는 성실납세자와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11, 12월에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